

◇서 평

이용범, 『중세 서양과학의 조선 전래』,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8

朴 星 來

이 책은 李龍範교수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책이다. 1921년 4월 3일에 나서 1989년 1월 29일 세상을 떠난 李교수는 평생의 전공을 과학사가 아닌 만주와 몽고의 역사라고 잡고 또 그 방면의 논문과 저서를 주로 내 왔다. 이 책은 그러나 그가 서거하기 직전에 자신의 과학사 논문 7편을 중심으로 다시 알기 쉽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놓은 책이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이 책을 쓴 것이 “어느 모로 보아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와 같은 “비전문가의 외도(外道)와 같은 서적을 펼치게 된 것은 나름대로의 사연과 어떤 신념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고 있다. 李龍範교수는 외도라고 스스로 겸양하면서도 분명히 그의 과학사에 남긴 업적에 대해 무한한 긍지를 느끼고 있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 이 책에 머리말을 쓴 것은 1987년 9월말, 이것이 책으로 발행된 것이 1988년 9월 15일로 되어 있고, 지은이는 그 뒤 4개월 남짓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이 책의 출간 준비를 마쳤을 때 끝에는 이미 그는 자기의 남은 날들을 헤아리고 있었지 않았던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러한 李교수의 정성을 반영이라도 하는 듯 이 책은 그가 지금까지 썼던 7편의 과학사 논문의 알맹이를 요령있게 요약하면서, 또 그 사이 사이에 들어가야 할 만한 내용을 잘 보충하고 있어서, 한국 과학사 연구의 앞날에 좋은 지표가 되기에 충분하다. 종래의 논문들과 달리 거의 순 한 글로 책이 엮어진 것도 특이하다.

『중세 서양과학의 조선 전래』(382pp.)는 3편의 본문과 부록으로 되어 있다. 제1편 “한국 고대의 천문 지식과 역(曆)”은 고대 사회의 천문관으로부터 조선초의 석각 천문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천문학사 개략을 소개한 것이다. 제2편 “중세 서양 문물과 조선 지식층”에는 주로 17-19세기 사이에 중국에 와서 활약했던 서양 선교사들의 활동상을 특히 조선의 천문역산가들과의 접촉 교류라는 측면에서 살펴 본 것이며, 제3편 “실학과와 중세 서양천문학”은 주로 이익(李瀼)과 홍대용(洪大容)의 서양 과학 수용을 소개한 글이다. 313페이지에서 382페이지 까지는 「중보문헌비고」권1 상위고(象緯考)가 번역되어 들어 있다. 저자의 말처럼 이 부록은 “가장 잘 정리된 고전적인 우리나라 천문학사”로서 여기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이 책에 풀어 넣어 놓은 李교수의 과학사 논문 7편을 들어 보자. 자신이 머리말에도 밝히 놓은 것처럼 지은이가 천문학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1년 11월 동국대 사학과의 고적답사반을 인솔하여 충북 속리산의 밭주사에 찾아갔다가 사찰에 깊이 보관되어 있던 천문도를 본 연유 때문이다. 이 천문도의 내용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가 쓰게 된 논문이 1966년에 발표된 다음 3편이다. “法住寺 소장의 新法天文圖說에 대하여”(『역사학보』 31-32집); “游宦紀聞所傳의 고려 九執曆에 대하여”(『동국사학』, 9-10집); “麗代의 僞曆에 대하여”(『진단학보』, 29-30집).

이어 1972년에는 “李瀼의 地動說과 그 論據”(『진단학보』, 34)가 발표되었고, 1974년에는 “瞻星臺 存疑”(『진단학보』, 38), 1976년 “金錫文의 地轉說과 그 사상적 배경”(『진단학보』, 41),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6년에는 「續 瞻星臺 存疑」(「동국대학교 80주년 기념논총」)를 발표했다.

이들 논문 가운데 이용범 교수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단연 첨성대에 대한 그의 독특한 주장을 담은 1974년의 논문일 것이다. 또 저자 스스로는 범주사의 천문도 연구에 상당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익과 김석문 등 조선 후기 학자들의 서양 천문학 수용, 특히 그들의 지전설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을 만한 연구였다.

첨성대에 대한李교수의 논문은 그 대강이 이 책 제1편 제4장에 요약되어 있다. 불교천문학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 다음 지은이는 “첨성대와 불교 천문학”이란 작은 제목을 따로 달아 그의 평소 주장을 정리해 놓고 있다. “처음에는 첨성대의 이름으로 불교 점성에 알맞는 건축물이 축조되고 그 옆에 수미산 모양의 초성소가 세워졌다가 그 후 불교 점성소인 첨성대는 무너져 그 이름이 첨성대로서는 부족 건물인 초성소로 옮겨져 지금까지 그렇게 칭하여 내려오고 있지 않는가 한다”는 결론이李교수의 마지막 논문(속 첨성대 존의)에서 인용되어 있다.

70년대에 몇 차례 진행되었던 첨성대의 정체에 대한 논쟁에서李교수는 그 모양이 불교의 須彌山을 본뜬 것이었고, 따라서 첨성대는 천문 관측대가 아니라 祭壇이었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1973년 한국과학사학회 주최의 첨성대 토론회에서李교수가 내세운 이 주장은 1974년 「진단학보」에 게재되었다. 1970년 켜이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나는 우연히 일본 책을 읽다가 須彌山의 사진을 보고 이것이 바로 첨성대라는 느낌을 받은 일이 있다. 1977년 귀국한 후에 다시 첨성대에 대한 토론의 기회가 있을 때 나는 그 모양이 수미산을 본 뜬 것이라는李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다만 그 위치가 신라 사람들이 農業神인 靈星을 제사하던 곳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부 천문학자들의 맹렬한 비판을 받았던李교수는 나의 지지에 어느 정도 고맙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 인용한李교수의 마지막 논문에서 그는 내 이름을 본문에 넣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약간 수정하여 내세웠다. 또李교수는 그 논문 별쇄를 집으로 보내주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바로 그 문제의 마지막 논문 내용이 간단히 요약되어 이 책에 들어 있다. 그러나 제1편 내용을 첨성대에 대한 것은 61-64페이지를 차지하고 그 안에 수미산 사진이 들어 있을 뿐이다. 그에 앞서李교수는 고대 천문학의 열개를 대강 소개하여 이 방면에 전혀 지식이 없는 독자들에게 동양 전통 천문학의 대강을 안내해 주고 있다. 또 바로 그 靈星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신라의 역법과 元嘉曆을 도입한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천문 기사에 대해서는李교수는 중국의 기록을 베꼈을 것이라는 종래의 학제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수정 노력에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 (p. 27)

역시 제1편에 이어지는 내용은李교수의 고려시대 僞曆에 관한 연구 내용이다. 특히 1052(고려 문종 6)년에 만들어진 몇가지 역법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李교수는 이들을 모두 허탄한 僞曆이라 몰아 붙인 일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李교수는 고려 때의 이런 역법이 “과학에 대한 무감각과 정제”를 반영하며, 당시 고려 사람들이 “합리적인 정신에서 벗어난 반과학적인 면을 조장시키는 데 귀한 정력과 지식을 헛되이 소모”했다고 단정하고 있다. (p. 73) 심정력, 칠요력, 전행력, 둔감력, 태일력, 구집력 등 당시의 여러가지 역법의 성격을 그런대로 밝히는 데李교수의 공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과연 이들 역법을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미신적이었다 하여 僞曆이라 매도할 수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제1편은 이어 고려말의 授時曆 수용과정을 설명하고 조선초 世宗 때의 천문학 발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 부분은 그리 새로운 것 없는 평범한 내용인 데 비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조선초의 石刻 天文圖에 대한 부분은 아주 뛰어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천문도는 세계에서 중국의 〈淳祐 천문도〉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石刻 천문도이기 때문에 지난 1985년 국보 제 228호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한 학문적 검토는 별로 잘 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李교수도 여기서 지적했듯이 쿠랑(Courant)이 그의 「한국서지」에서 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이래 1913년과 1944년 루퍼스(W. Carl Rufus)가 그 대강을 소개한 정도에서 머물고 있어 별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있지 않다. 李교수는 이 천문도의 내용을 문헌사학도답게 문헌상으로 중국의 사료와 비교하여 아주 흥미있는 사실을 몇가지 소개하고 있다.

우리의 석각 천문도인(天象列次分野之圖)에 새겨 있는 28宿의 赤道廣度を 중국의 역대 자료와 비교해 본 결과 李교수는 그것이 훨씬 뒤의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漢書〉律曆志와 일치함을 발견한 것이다. 또 28宿의 去極度の 값도 唐나라의 一行이 측정한 값조차 반영되지 않은 낮은 것임을 발견하고 있다. 이 천문도는 權近의 발문에 의하면 1395년에 그려졌으며, 이 천문도를 그리기 위해 새로 천문 관측이 행해졌다고 되어 있다. 李교수의 연구로 과연 그런 천문 관측을 한 일이 있는지가 의심스럽게 된 것이다. 李교수는 결론적으로 이 천문도는 과학적인 면에서 평가하기 보다는 “이대조의 혁명을 합리화”(p. 110)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해석이다. 이 부분은 하나의 독립된 논문으로 나와야 할 가치가 있는 훌륭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필자 또한 비슷한 의심을 갖고 있던 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음 읽고 故人의 학문에 다시 머리숙이게 된다.

제 2편은 조선 후기에 들어 사대부 학자층이 중국에 와서 활약하던 서양 선교사들과 어떻게 접촉하여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를 개관하고 있다. 먼저 李교수는 李暉光의 「芝峰類說」에 나타난 서양 지리에 대한 인식을 소개하고, 유명한 우리나라의 李榮後가 선교사 로드리게스(陸若漢)에게 질문한 천문학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에는 망원경과 자명종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 있다. 이어 아담 살(湯若望)을 통한 서양 티코 브라헤의 천문학 도입이 설명되어 있는데, 주로 중국에서의 수용을 말한 다음, 역시 잘 알려진 아담 살과 昭顯世子 관계, 時憲曆의 도입과 그를 위해 힘쓴 역관들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韓興一과 金尙范 등을 말한다.

숙종 31(1705)년과 34년에 중국에 가서 서양식의 역산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許遠은 그의 새 지식을 묶어 책으로 냈는데, 이 「玄象新法細草類彙」는 “우리나라에서 저술된 최초의 서법(西法)에 의한 천문력법서”(p. 182)라는 것이 지은이의 평가이다. 또 이런 방문을 통해 얻어온 페르비스트(南懷仁)의 새로운 서양식 천문도가 숙종 40년에 이미 모사되었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바로 이보다 좀 뒤에 李頤命은 戴進賢(戴進賢)를 만나 역시 천문학에 대한 문답을 한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고 金萬重의 지구설에 대한 주장을 소개했다. 그 뒤에도 조선 천문역산가 가운데 安重泰, 金允瑞 등이 중국을 왕래하며 천문역산을 배워 왔다.

이런 조선 후기에 들어 계속되었던 한중 교류 또는 서양 선교사 천문학자와의 교류 과정을 상세히 일괄해서 소개한 기록은 일찍 없던 일이어서 이것만으로도 값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잡다한 기록의 나열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金錫文의 지전설에 대한 李교수의 논문은 이 부분에 간추려 소개되어 있다. 또 李교수를 한국천문학사 연구로 안내했던 그 문제의 法住寺 天文圖에 대한 연구 결과도 여기 들어 있다. 李교수는 이 천문도의 원본을 戴進賢의 黃道總星圖로 밝히고 중국에서도 밝혀져 있지 않은 이 천문도의 제작연대가 1723년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제 3편은 李瀛과 洪大容의 서양과학 수용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 간단하다. 또 앞서 나온 김석문과 홍대용의 지전설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설득력있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원래 李교수는 李瀛이 지동설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1972년의 논문을 발표했으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여기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집어 넣고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빈약할 수 밖에 없다. 또 홍대용과 이익 모두 다른 연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의 중요성은 약화된다고 할 수 있겠다.

李龍範교수는 이 책을 통하여 자신의 과학사에 남긴 업적을 스스로 재평가, 정리하고, 또 그 작업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다. 혹시 그는 자기의 어느 다른 분야 업적보다도 이 업적이 훨씬 중

요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이 정리과정을 통해 그는 첨성대와 신법천문도에 대한 그의 자신감에 찬 공헌을 다짐하고, 특히 조선학자들의 서양천문학 도입 노력에 대해서는 그 대강의 문헌적 정리를 통하여 우리 후학에게 큰 숙제를 던져 주고 떠났다.

늘 존경하는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나는 고인에 대해 살아 계시는 동안 가까이 접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다만 강하게 남는 인상이 있다면李교수는 약간 췌소리가 나는 듯한 목소리에 아주 빠른 말씨를 가져 가끔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 때 선생님이었다는 延大의 閔泳珪교수님께 대하는 아주 공손한 태도와 말씨 등이다. 그리고 보니李교수를 한 자리에서 한참 함께 할 기회라고는 연대 국학연구원이 마련했던 17-18세기 한국의 역산가들에 대한 학술회의 정도 뿐이었던 것 같다.

돌아 가시기 직전李교수께서는 내게 이 책 한 권을 보내 주셨다. “乞 挿架 1988年 仲秋 著者 謹呈”이란 선생의 글씨가 찍어 있는 아래 “1988.10.6. 학교로 보내 주심”이라는 내 글이 남아 있다. 바로 그 위에 나는 1989년 1월 30일자 「동아일보」를 오려 붙여 놓았다. “전 동국대 대학원장 李龍範씨 별세”라는 11줄 짜리 기사다. 나는李교수가 자신이 정리하고 싶던 조선시대 서양과학의 수용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개인적 관심을 내게 표시하기 위해 그의 저서를 보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나는 이 책을 내 서가 정면에 꽂아 두고 자주 꺼내 본다. 색인이 없다는 것이 큰 불편이기는 하지만, 이 방면에 관심있는 모든 학자, 학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은 분명하다. 서평을 곁하여 한국과학사에 큰 업적을 남기신 고인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1990. 2. 18)